

시리아 내전, 또 美-러시아 공방전으로

휴전 파기 서로 책임 떠넘기기 러시아, 400km 방공미사일 배치 푸틴, 공군 영구 주둔도 추진

미국이 러시아와 시리아 사태 협상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러시아가 강경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시리아 휴전을 재개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협상을 중단한다면서 “이는 결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시리아 휴전 파기와 협상 중단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비난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군사적 대응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방공미사일 S-300V4(나토명 SA-23 Gladiator)를 시리아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고리 코나센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4일 “S-300V4가 시리아로 보내진 것이 사실”이라며 “포대는 시리아 타르투스항의 물류 시설과 인근 해역의 러시아 해군 함정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폭스뉴스는 지난 주말 S-300V4 미사일이 시리아 타르투스항으로 운송돼 전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TV 방송은 시리아 내 알누스라 전선(자바트 파테 알삼)이나 ‘이슬람국가’(IS) 등의 테러 조직에는 방공미사일을 적용할 만한 전투기나 순항미사일이 없는 만큼 러시아 미사일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러시아 군사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S-300V4는 이전 S-300V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수출용 버전은 S-300VM 혹은 안테나-2500로 불리기도 한다.

사거리 최대 400km로 전투기는 물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해 11월 터키 전투기가 시리아 국경에서 자국 전폭기를 격추한 사건 뒤 라타키아 기지에 첨단 S-400 방공미사일을 배치한 바 있다.

러시아는 또 자국 공군을 시리아 기지에



어린이도 집어삼킨 알레포의 포탄 울리고 있다.

시리아 알레포의 반군 지배 지역에 대한 정부군의 대대적 공습이 가해진 4일(현지시간) 민간인 구조대 ‘하얀 헬멧’이 파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한 어린이 희생자를 /연합뉴스

영구 주둔시키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의회 소식통은 3일 하원이 이번 주 안에 러시아 공군의 시리아 영구 주둔 협정을 비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협상 중단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될 것이라고 자국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밝혔다.

러시아는 시리아 공습 작전을 개시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 말 시리아 북서부 라타키아의 흐메이임 기지에 러시아 공군을 무기한 무상으로 주둔시키는 협정을 체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앞서 8월 초 비준을 위해 이 협정을 하원에 제출했다.

상하원의 협정 비준으로 러시아 공군의 흐메이임 기지 영구 주둔이 확정되면 개방 이후 쿠바나 베트남 등의 옛 소련 시절 군사기지가 폐쇄된 뒤 최초의 원거리 러시아 군사기지가 될 전망이다. 기지는 미국의 대(對) 중동 정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공군은 현재 흐메이임 기지를 한



시적으로 사용하며 시리아 공습 작전을 벌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이날 미국의 비우호적 행동을 이유로 지난 2000년 미국과 체결했던 무기금 수출통제 조약이 효력을 상실

협정을 잠정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러시아 측은 이 같은 조치들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두테르테, 미국에 “중국편이 낫다” 으름장

로드리고 두테르테(사진) 필리핀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국의 마약과의 유혈전쟁을 비판하는 미국에 대해 단교도 불사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으름장을 놔다. 5일 필리핀 온라인매체 래플러 등에 따

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밤 필리핀 마닐라의 한 유대교 회당을 방문해 최근 마약소탕전을 독일 나치 정권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에 비유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 뒤 거친 반미 감정을 쏟아



두테르테 대통령이 결별의 의미를 설명

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외교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결국 내 시절(인기)에 미국과 결별할지도 모른다”며 “차라리 러시아와 중국으로 가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자신이 최우선 정책으로 삼은 마약 전쟁에 대해 계속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단교 카드도 꺼낼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19일 중국에 이어 연내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로부터 무기 구매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빌 클린턴(왼쪽) 전 미국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일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함께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힐러리 ‘외조 왕’의 돌발 행동

빌 클린턴 “오바마케어는 미친 제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Barack Obama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세상에서 가장 미친 제도라고 비난하는 대표적인 오바마 레거시(업적)로, 그의 발언을 계기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이슈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캠프는 즉각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는 클린턴을 공격하고 나섰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 주(州) 플린트에서 한 지원유세에서 오바마케어를 작동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혹평하면서 국민들이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를 쉽게 구매해 그 제도로 확대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느 날 갑자기 2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보험에 가입하고, 또 파산하는 이런 미친 시스템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1주일에 60 시간을 일하고도 프리미엄 플랜 보험료는 배로 인상되고 보장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공개 발언을 지지하는 클린턴을 공격하고 나섰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공개 비판은 자신의 부인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입장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힐러리 킹메이커를 자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직접 공격이기도 하다.

힐러리 클린턴은 현재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를 더욱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방안도 민주당의 대선 정강에 공식 반영한 상태다. /연합뉴스

시진핑, 캄보디아 첫 방문...우호 다지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중 동남아시아의 우방인 캄보디아를 재방문 처음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크메르방송이 5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시 주석의 세부 방문 일정이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이틀간 머무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정부가 야당과 인권단체를 탄압한다는 서방의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진다. 시 주석은 캄보디아와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경제·방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지

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캄보디아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캄보디아가 2017년 지방선거와 2018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31년째 권좌를 지키고 있는 훈센 총리는 최근 반정부 활동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필리핀, 베트남 이외에 미국, 일본도 얽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중국 편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호텔급, 대형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다용도 개발 가능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감정가 - 14억 (2016. 7월 감정)
- 1순위(은행) - 6억 3천만원 대출
2순위(개인) - 1억
- 매매 - 협의,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무인텔 부지

- 무안군(읍) 성동리 621-1번지
- 대지 530평, 백악관 모텔 옆
- 무인텔 허가 득
- 시세 / 감정가 - 12억
- 매매 - 9억 5천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토지매매, 20억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기한 - 9월 30일까지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